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2년 4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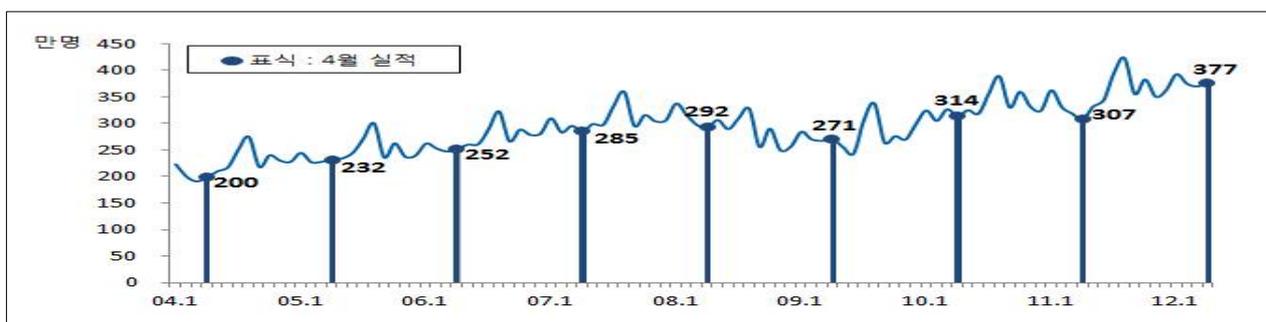
2012년 4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2012년 4월 항공여객은 국내 총선,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 연휴, 환승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 및 국내여객은 전년대비 22.3%, 5.5%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반면 항공화물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경기회복, 지연, 소비심리위축, 주요 수출품목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1% 감소

국제여객

일반적으로 4월은 여객수송 비수기이지만 2012년 4월 국제여객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377만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국내 총선 휴일로 인한 내국인 여행 증가와 일본 골든위크¹⁾ 및 중국 노동절²⁾ 연휴기간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여객 감소 기저효과가 동반되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로 인해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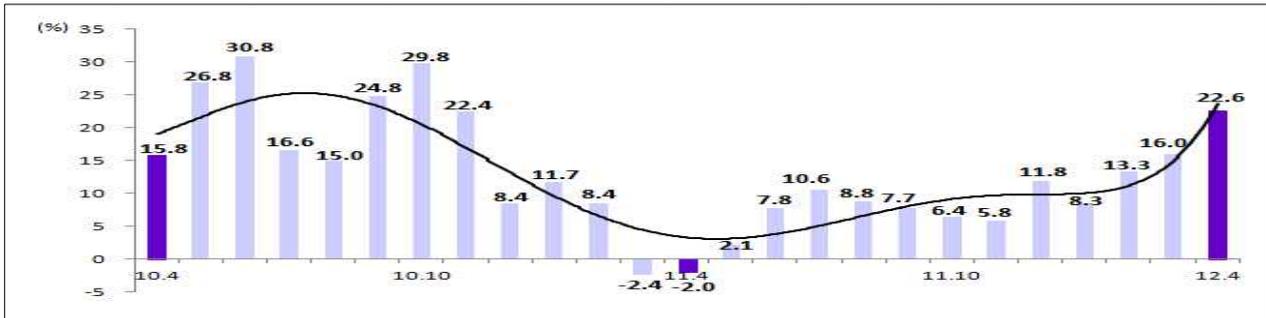
국제여객 실적추이



1) 일본 골든위크 연휴 기간 : 4월 28일 ~ 5월 6일

2)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 4월 29일 ~ 5월 1일

월별 국제여객 증감률



공항별 국제여객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제여객 실적의 비중은 인천공항 79.3%, 김해공항 9.0%, 김포공항 8.9%, 제주공항 2.2%로 총 4개 공항이 99.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올 4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공항은 제주공항으로 운항 및 여객 실적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61.6%, 105.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 뒤를 이은 여객 성장률은 김포공항 45.2%, 김해공항 38.0%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공항별 국제선 실적

(단위 : 회, 명)

구분	운항			여객		
	'11년 4월	'12년 4월	전년대비 증감률(%)	'11년 4월	'12년 4월	전년대비 증감률(%)
인천	17,801	19,371	8.8%	2,529,313	2,990,272	18.2%
김해	2,005	2,649	32.1%	244,934	337,959	38.0%
김포	1,371	1,688	23.1%	229,714	333,558	45.2%
제주	375	606	61.6%	40,743	83,561	105.1%
대구	113	85	△24.8%	14,443	10,199	△29.4%
청주	85	63	△25.9%	9,893	6,790	△31.4%
무안	52	50	△3.8%	5,849	5,547	△5.2%
양양	0	4	-	0	597	-
합계	21,802	24,516	12.4%	3,074,889	3,768,483	22.6%

제주공항 국적별 국제선 여객 비중변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제주공항의 국제여객 실적을 노선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올해 및 전년도 4월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일본(54.5%), 중국(34.3%), 대만(10.1%) 순이었으나, 올해에는 중국(55.3%), 일본(36.6%), 대만(5.9%) 순으로 1월에 이어 또다시 중국노선이 일본노선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주공항의 중국 노선 비중을 살펴보면 푸둥(36.9%), 북경(18.2%), 닝보(9.3%) 순으로 높고, 이 3개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64.4%이다. 그 중 푸둥노선은 작년 4월에 4천 6백 명이었으나 올해 4월에는 1만 7천명으로 약 3.7배 증가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는 작년 4월에는 중국동방항공이 60회를 운항하였으나 올해 4월에는 중국동방항공 60회, 진에어 60회로 운항회수가 2배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닝보 노선은 2012년 3월에 취항하여, 올해 4월에는 중국동방항공 12회, 이스타항공 18회로 4천 3백명을 기록하였다. 즉, 국내 저가항공사의 국제노선 진출이 제주공항 국제 여객실적을 상승세로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경노선은 대한항공이 작년 4월의 약 1.8배인 60회를 운항하였으며, 승객은 전년대비 103.7% 증가한 8천 4백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노선의 취항으로 공급이 증가하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중국 노선별 국제선 여객실적

(단위 : 명, %)

구 분	' 11년 4월	' 12년 4월	전년대비 증감률(%)	'12년 비중(%)
푸 동	4,637	17,074	268.2%	36.9%
북 경	4,128	8,408	103.7%	18.2%
닝 보	-	4,320	-	9.3%
대 련	1,469	2,761	88.0%	6.0%
장 춘	1,770	2,485	40.4%	5.4%
하얼빈	1,426	2,465	72.9%	5.3%
서 안	560	2,172	287.9%	4.7%
심 양	-	2,010	-	4.3%
항조우	-	1,919	-	4.1%
창 사	-	1,139	-	2.5%
난 징	-	750	-	1.6%
허 폐	-	733	-	1.6%
난 링	-	12	-	0.0%
합 계	13,990	46,248	230.6%	100.0%

제주공항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인 김포공항은 일본·중국노선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26.8%, 155.6% 증가하여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노선 중 홍차오 노선의 경우 작년 4월과 동일하게 아시아나항공, 중국동방항공, 상하이항공, 대한항공 각각 60회씩 총 240회 운항하였으나 탑승률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8.1% 증가하였다. 그 밖에 2011년 7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북경노선에 아시아나항공 62회, 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대한항공 각 60회로 총 242회 운항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한 추가 수요가 중국노선의 높은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공항 중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청주공항은 작년 4월에 비해 중국노선의 운항감소(68회→55회, 13회 감소) 및 태국 노선 운항 중단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31.4%의 큰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국노선 중 연길노선의 운항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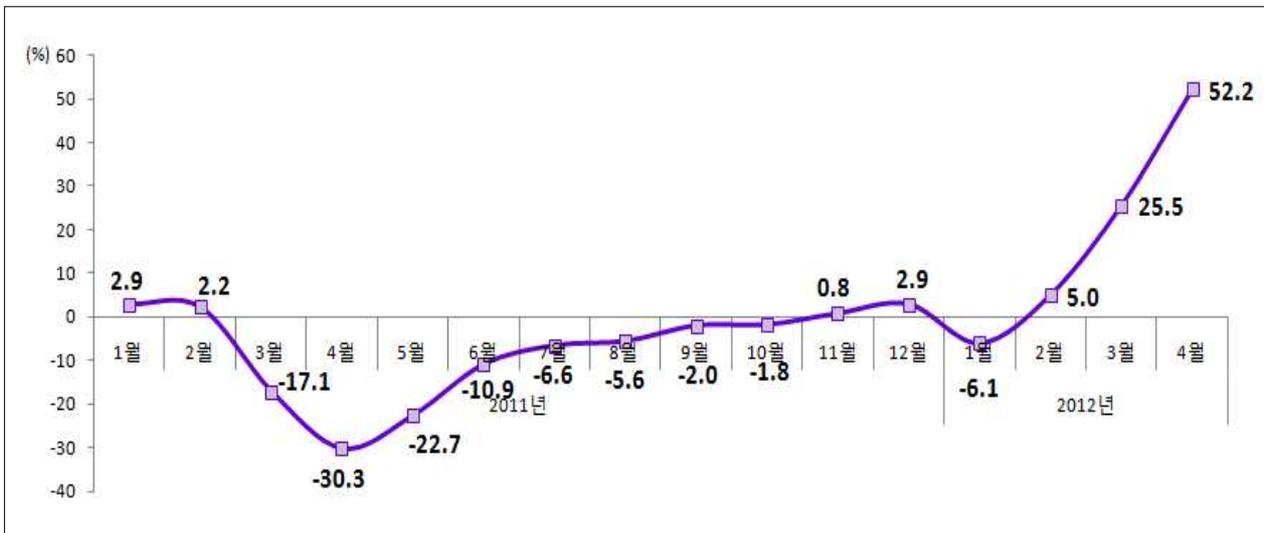
지역별 국제여객 실적

(단위 : 명)

구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1년 4월	616,491	305,645	1,026,109	772,716	215,651	93,007	45,270
'12년 4월	938,586	315,372	1,247,363	851,487	245,308	115,419	54,948
전년대비 증감률(%)	52.2%	3.2%	21.6%	10.2%	13.8%	24.1%	21.4%

지역별로 국제여객실적을 살펴보면 일본지역이 전년대비 52.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11년 4월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관광객 감소 및 내국인의 일본여행 기피 현상 등으로 전년대비 30.3%의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시점이었기에 기저효과로 '12년 4월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3월 대지진발생이후 일본노선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그 뒤를 이어 대양주지역은 전년대비 24.1% 증가하여 높게 증가하였다. 대양주 노선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호주 노선의 여객기 운항감소에도 불구하고, 탑승률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다.

동남아지역은 여객기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공급좌석 증가로 전년대비 2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K-POP 한류인기에 따른 지속적인 관광수요가 뒷받침된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지역은 여객기 운항횟수 및 공급석 증가에 따라 환승 및 OD 여객이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다. 미주 노선은 OD 여객 성장 및 휴양지 노선의 성장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0.2%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지역은 노동절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및 한류 열풍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국제여객 실적은 상승세로 나타났다.

4월 국적사의 비율³⁾은 67.2%로 전년대비 1.5%p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의 실적은 전년대비 2.6배 증가하여 7.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0.0%('08.4) → 0.38%('09.4) → 1.8%('10.4) → 3.3%('11.4) → **7.1%('12.4)**

4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운항회수 및 공급좌석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5.5% 증가한 56만명을 기록하였으며, 환승률은 전년대비 0.6%p 감소한 18.5%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승여객 : 41만명('09.4) → 44만명('10.4) → 49만명('11.4) → **56만명('12.4)**

* 환 승 률 : 18.1%('09.4) → 17.2%('10.4) → 19.1%('11.4) → **18.5%('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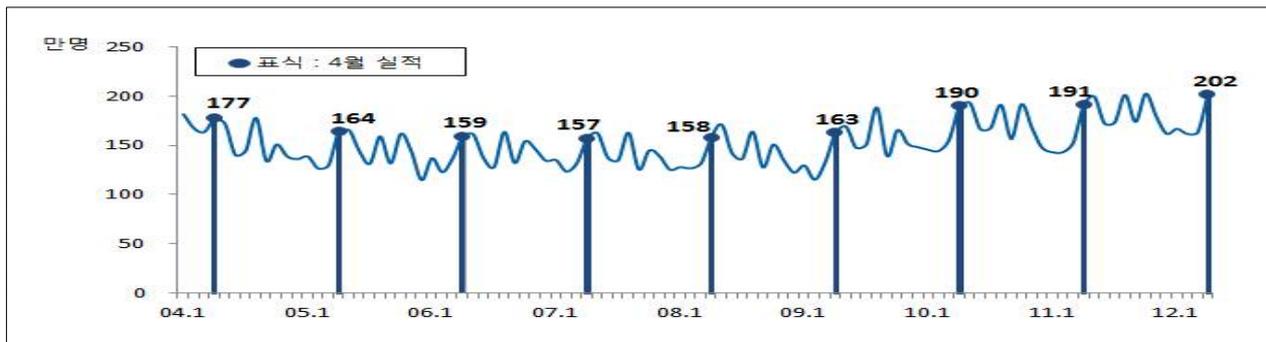
3) 외항사의 비율은 32.8%

국내여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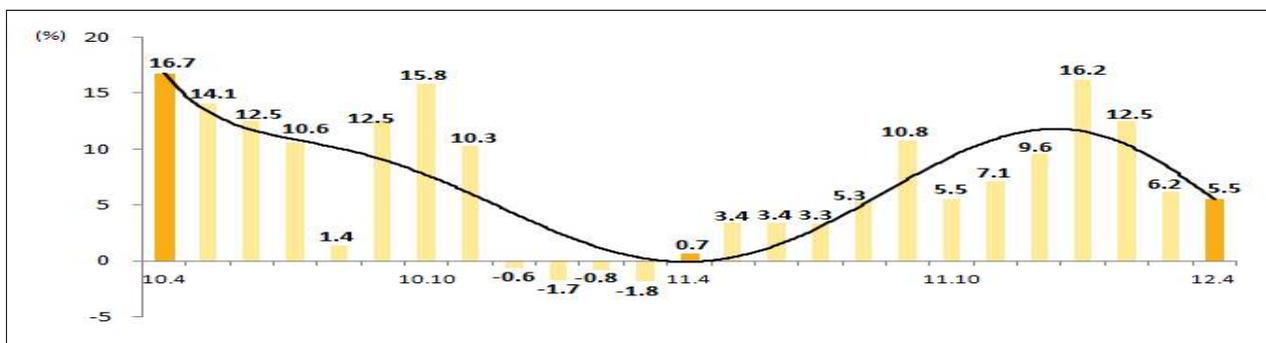
2012년 4월 국내여객은 총선 휴일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운항 증대 및 다양한 운임할인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202만명을 기록하였다.

공항별 국내여객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여객 실적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공항 40.6%, 김포공항 34.7%, 김해공항 12.0%, 총 3개 공항이 84.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중 높은 총 3개의 공항이 각각 전년대비 7.0%, 6.6%, 5.8% 증가하여 올해 4월 국내여객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국내여객 실적추이



국내여객 증감률



반면 KTX 전라선 영향권인 여수공항과 경부선 영향권인 울산공항은 전년대비 각각 8.8%, 11.7% 감소하였다. 2011년 10월 KTX 호남선이 개통한 이후에 항공부문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항별 국내선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항			여객		
	'11년 4월	'12년 4월	전년대비 증감률(%)	'11년 4월	'11년 4월	전년대비 증감률(%)
제 주	4,707	4,918	4.5%	766,495	819,817	7.0%
김 포	4,588	4,691	2.2%	657,197	700,414	6.6%
김 해	1,581	1,746	10.4%	229,442	242,813	5.8%
광 주	441	467	5.9%	59,561	59,150	△0.7%
청 주	315	335	6.3%	54,509	52,649	△3.4%
대 구	297	307	3.4%	46,069	46,848	1.7%
여 수	243	238	△2.1%	27,816	25,363	△8.8%
울 산	231	225	△2.6%	24,742	21,851	△11.7%
기 타 ⁴⁾	544	554	1.8%	47,184	49,336	4.6%
합 계	12,947	13,481	4.1%	1,913,015	2,018,241	5.5%

국내 노선별로 살펴본 결과 김포-제주노선이 51.7% 점유하여 104만명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김해-제주노선이 13.6% 점유하여 27만명, 김포-김해노선이 9.5% 점유하여 19만명으로 나타났다. 즉, 3개의 노선이 74.7% 점유하여 주요노선임을 파악하였다.

국내 여객 실적은 공항 및 노선별로 분석결과 제주노선의 실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륙노선은 전체 노선의 18.9%의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반면 제주

4) 인천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무안

노선은 전체 노선의 81.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7.6% 증가하여 164만 명을 기록하였다. 그로 인해 내륙노선의 감소분을 제주노선의 상승분으로 충분히 상쇄하여 국내여객의 상승세로 이끌었다.

제주·내륙노선 국내여객실적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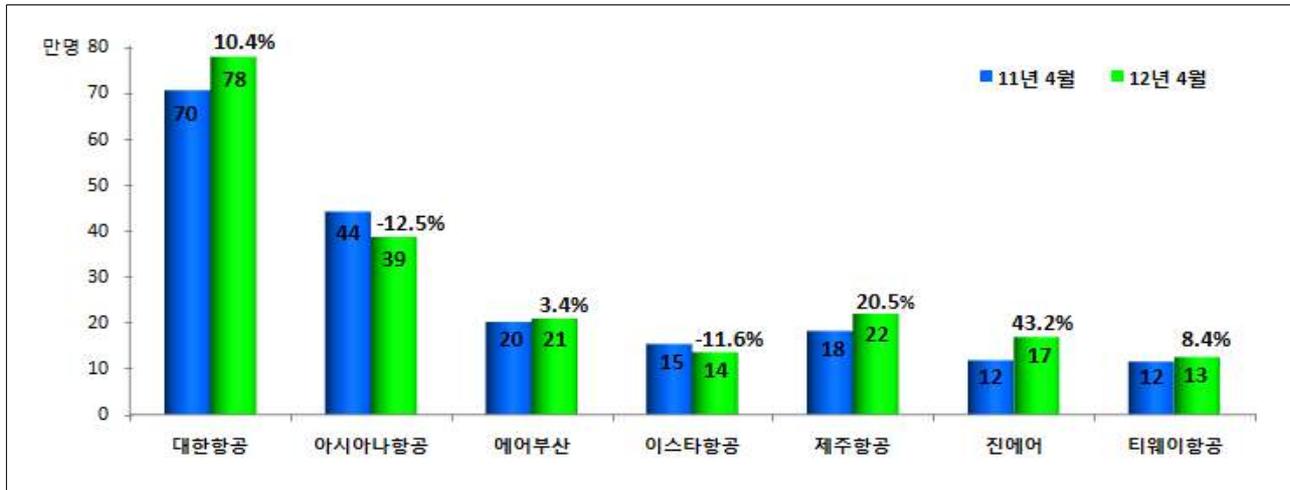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전체노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2011년 4월	1,521,981	84.3%	391,034	64.4%	1,913,015	79.3%
2012년 4월	1,637,285	86.3%	380,956	64.0%	2,018,241	81.0%
전년대비	115,304	2.0%p	△10,078	△0.4%p	105,226	1.7%p

또한, 탑승률도 여객실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제주노선은 86.3%로 전년대비 2.0%p 개선되었고,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0.4%p 감소한 64.0%로 나타났다. 전체 노선의 탑승률은 전년대비 1.7%p 증가한 81.0%로 기록되었다.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86만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분담률 또한 2.2%p 상승한 42.4%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대형국적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하여 116만명을 기록하였다. 국내선에서는 저비용항공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진에어 및 제주항공이 전년대비 각각 43.2%, 20.5% 증가하였다.

4월 대형국적사의 평균탑승률은 75.2%로 나타났으며, 저비용항공사의 평균탑승률은 90.4%로 나타났다.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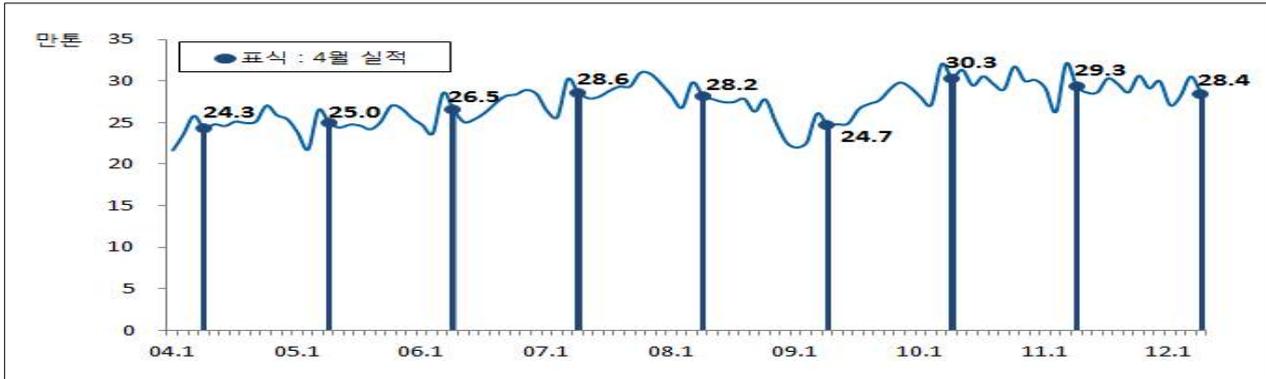
항공화물

2012년 4월 항공화물은 국제정세 악화 및 세계경제 회복세 미진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1% 감소한 284,292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항공화물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259,728톤을 기록하였고, 국내항공화물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24,563톤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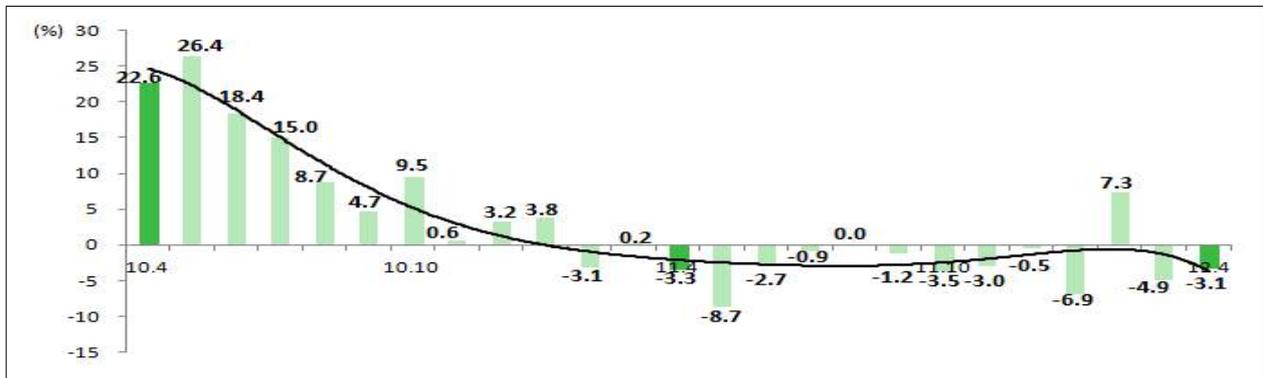
항공화물의 공항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94.9%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전년대비 4.7% 감소하여 전체 국제항공화물의 감소세를 이끌었다.

국내화물 운송량은 제주공항(53.0% 비중) 및 김포공항(25.9% 비중)이 각각 전년대비 0.5%, 10.6% 증가하였다. 반면 김해공항(10.8% 비중)은 전년대비 9.2%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국내화물 실적은 제주공항 및 김포공항의 상승세가 김해공항의 감소세를 상쇄하여 전년대비 0.9%의 미미한 성장을 나타냈다.

전체 항공화물 실적추이



전체 항공화물 증감률



주요 공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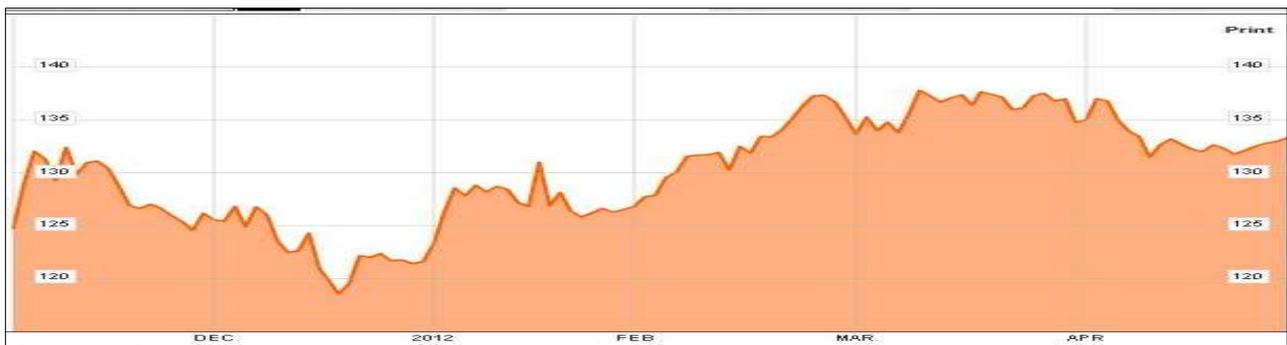
구분	국제화물			국내화물		
	'11년 4월	'12년 4월	전년대비 증감률(%)	'11년 4월	'12년 4월	전년대비 증감률(%)
김포	4,603	6,605	43.5%	5,758	6,366	10.6%
김해	4,673	5,237	12.1%	2,929	2,659	△9.2%
제주	486	903	85.8%	12,949	13,017	0.5%
인천	258,850	246,560	△4.7%	256	291	13.7%
기타 ⁵⁾	365	423	15.9%	2,454	2,230	△9.1%
합계	268,977	259,728	△3.4%	24,346	24,563	0.9%

5) 국제 : 대구, 청주, 무안, 양양, 국내 : 대구, 광주, 청주, 무안,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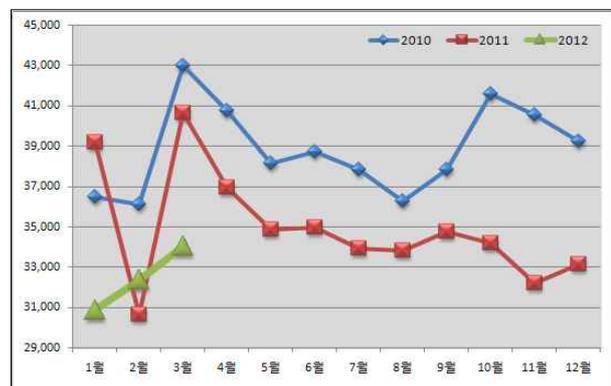
국제화물은 전체 항공화물의 91.4%를 차지하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물은 세계 경기 및 유류비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올해 4월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유류비용 증가 및 주요 교역국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정기편 화물기 운항을 크게 감축하였다. 그로 인해 국제항공화물수송량 역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다.

건당 항공화물 중량 추이를 살펴보면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주요 수출 항공화물 품목인 무선통신기기는 '11년 2월 이래 전년대비 중량 실적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⁶⁾

최근 6개월간 싱가포르 제트유 변동⁷⁾



건별 수출입 항공화물 중량 추이(좌) / 무선통신기기 수출입 중량 현황(우)



6) 자료출처 : 무역통계('12년 3월까지 실적자료임)

7) 자료출처 : <http://www.bloomberg.com/quote/JETKSIFC:IND/chart>

지역별 국제화물 실적

(단위 : 톤)

구 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1년 4월	34,563	57,563	69,964	52,617	46,252	4,187	3,831
'12년 4월	35,768	51,923	72,957	44,777	45,193	4,058	5,054
전년대비	3.5%	△9.8%	4.3%	△14.9%	△2.3%	△3.1%	31.9%

지역별로 국제화물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동남아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내었다.

지역 중 가장 낮은 성장세를 나타낸 것은 미주 지역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14.9%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선진국 경제 둔화에 영향을 받아 중국 경제성장률도 역시 둔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중국 노선은 환적화물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9.8%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동남아 지역은 각각 전년대비 3.5%, 4.3%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지역별 국제화물은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주요 환적화물 운송국인 중국 및 미국 노선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9.6% 감소한 85,887톤을 기록하였고, 환적률은 0.7%p 감소한 43.0%를 기록하였다.

2012년 3월 공항 출입국동향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등 외국인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2년 3월 전체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17.3% 증가하여 92만명 기록하였다. 그리고 내국인 출국은 전년대비 17.3% 증가하여 102만명으로 나타났다.⁸⁾

- * 전체 출입국자: 194만명, 공항 이용 출입국: 174만명
-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1년 3월 67만명 → '12년 3월 81만명)
-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1년 3월 80만명 → '12년 3월 93만명)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객은 88.3%로 전년대비 2.9%p 증가하였고,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객은 91.5%로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포, 김해 공항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해, 김포 공항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외래객입국의 경우 김해·김포·제주공항이 전년대비 3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내국인출국의 경우 김포·제주공항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김해공항은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출입국 현황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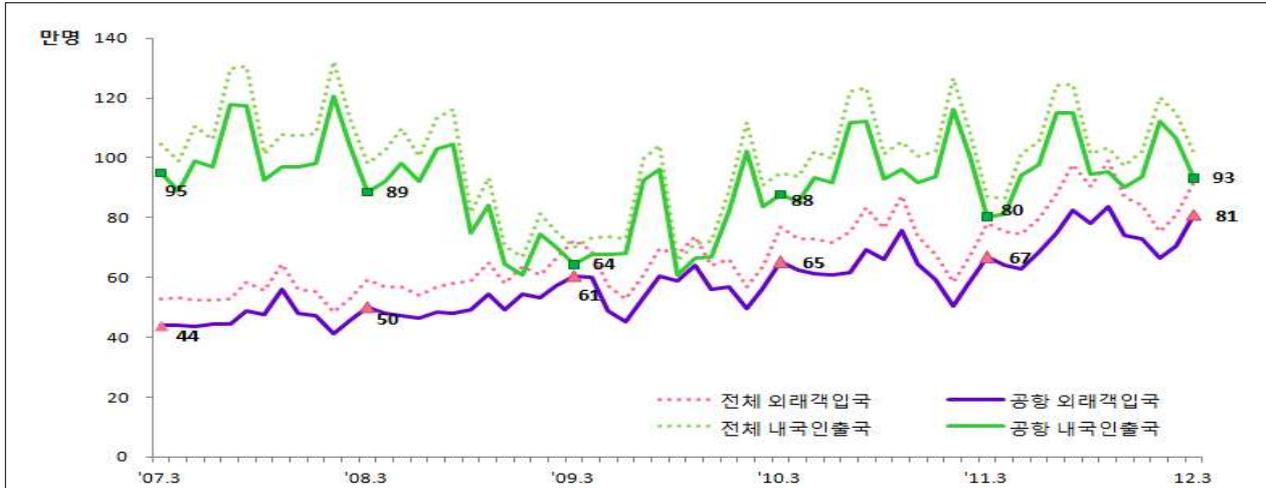
구 분	공항					비중 (%)	항구	비중 (%)	합계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외래객입국	591	64	119	32	3	809	88	107	12	916
내국인출국	746	109	66	3	9	933	92	86	8	1,019
계	1,337	173	185	35	12	1,742	90	193	10	1,935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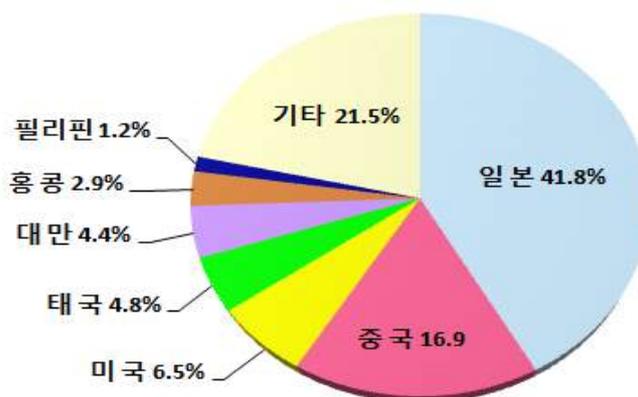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중 (%)
	'11년 3월 입국	'12년 3월 입국	증감률 (%)	점유 (%)	'11년 3월 출국	'12년 3월 출국	증감률 (%)	점유 (%)	
공 항	667,463	809,043	21.2	88.3	802,458	932,588	16.2	91.5	53.5
· 인천	500,722	590,789	18.0	64.5	662,295	746,127	12.7	73.2	55.8
· 김해	48,854	64,096	31.2	7.0	83,197	109,301	31.4	10.7	63.0
· 김포	89,574	118,735	32.6	13.0	42,442	65,561	54.5	6.4	35.6
· 제주	22,991	32,063	39.5	3.5	2,301	3,453	50.1	0.3	9.7
· 기타	5322	3360	△36.9	0.4	12,223	8,146	△33.4	0.8	70.8
항구 등	113,823	107,314	△5.7	11.7	66,236	86,364	30.4	8.5	44.6
합 계	781,286	916,357	17.3	100.0	868,694	1,018,952	17.3	100.0	52.7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그래프



2012년 3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골든위크 및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일본 및 중화권의 외래객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은 전년 대비 34.0% 증가하였고, 중국·대만·홍콩은 각각 전년 대비 14.6%, 39.0%, 27.7% 증가하였다. 그 밖에 필리핀과 태국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미국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입국	공항						전체	전년대비 증감률(%)	국적별 비중(%)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일 본	360,719	191,980	33,460	98,909	14,089	11	338,449	34.0	41.8	
중 국	183,691	104,626	9,418	8,520	12,923	1,321	136,808	14.6	16.9	
미 국	55,907	47,146	1,912	1,883	201	1,280	52,422	3.1	6.5	
태 국	38,869	36,599	1,386	549	24	149	38,707	12.0	4.8	
대 만	35,624	30,594	2,865	183	1,622	14	35,278	39.0	4.4	
홍 콩	23,598	21,121	2,246	139	59	0	23,565	27.7	2.9	
필리핀	20,950	8,028	1,658	78	332	11	10,107	16.8	1.2	
기 타	196,999	150,695	11,151	8,474	2,813	574	173,707	10.2	21.5	
전 체	916,357	590,789	64,096	118,735	32,063	3,360	809,043	21.2	100.0	